

재난보도 방송에 사용된 자극적 표현 연구

서은아* · 김형주**

|| 차례 ||

- I. 머리말
- II. 자극적 표현의 개념 정의
- III. 자극적 표현의 유형 및 사용 실태
- IV. 맺음말

【국문초록】

이 연구에서는 재난보도 방송에 사용된 자극적 표현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를 다룬 지상파 채널 3곳과 종합편성 채널 3곳의 정규 뉴스 프로그램 6회 분(88,133음절)을 대상으로 ‘자극적 표현’의 유형을 8가지로 세분하여 그 사용 실태를 점검하였다.

그 결과, 피해 상황을 과장하는 정도 표현으로는 ‘대형-’과 ‘최악’의 사용 빈도가 높고, 구조 상황을 과장하는 과일반화 표현으로는 ‘충동원’과 ‘급파’, ‘필사’ 등의 사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피해 상황을 과장하는 극단적 표현으로 ‘아비규환’과 ‘이수라장’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이들 표현은 정확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언론의 감시 기능을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뉴스 진행자의 직접적인 감정 표현으로는 ‘안타깝다’를, 수사적인 감정 표현으로는 ‘악몽’을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피해자 가족의 감정 표현으로는 ‘오열하다’와 ‘항의하다’를 많이 사용했는데, 이들 표현은 ‘과어휘화’의 문제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사용이 요구된다.

* 상명대학교 기초교양대학 조교수.

**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 특임교수.

피해 상황의 구체적인 묘사 표현으로는 뉴스 진행자가 사고 직후 피해 현장을 생중계로 직접 묘사한 표현과 목격자의 진술에 근거한 표현보다 방송 진행자의 추측이나 가정에 근거한 표현이 많이 사용되었다. 피해자의 슬픈 사연 소개 표현으로는 50년 지기 초등학교 동창생의 마지막 환갑 여행에 관한 이야기에서부터 여섯 살 어린이의 신상을 파헤친 이야기, 희생자들이 가족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는 등 자극적인 사연을 소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세월호, 재난방송, 방송언어, 자극적 표현

I. 머리말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재난보도 언어 사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한국방송협회 등은 ‘재난보도준칙(2014)’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은 ‘방송언어 가이드라인(2015)’을 마련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 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침에 언급되어 있는 ‘자극적 표현’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자극적 표현의 실제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2014년 9월 한국방송협회와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 5개 언론단체는 재난보도의 고질적인 병폐를 근절하기 위해 ‘재난보도준칙’을 제정하였다. ‘재난보도준칙’은 총 4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제15조에는 “피해자 가족의 오열 등 과도한 감정 표현”이나 “재난 상황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흥미 위주의 보도 등은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제16조에는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용어, 공포심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2015년 9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언어 사용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방송언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방송언어 가이드라인’은 모든 방송 장르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 원칙과 장르별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재난보도와 관련이 있는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세부 원칙은 총 18개이며, 그중 17번째 원칙과 18번째 원칙에서 “시청자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지나치게 흥분된 어조”와 “개인적 감정 표출”,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공포심과 수치심을 주는 선정적·자극적인 표현”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침은 선언적 의미가 강할 뿐, 자극적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인지 명시해 놓고 있지 않다. 그 결과 국가적 재난으로 분류된 메르스 뉴스(2015. 5.)와 경주 지진 뉴스(2016. 9.)에서 이들 지침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세월호 뉴스(2014. 4.)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란, 패닉, 공포(또는 포비아), 최악” 등의 자극적 표현이 그대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들 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극적 표현’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개념 규정과 함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앞선 연구를 토대로 자극적 표현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를 다룬 지상파 채널 3곳과 종합편성 채널 3곳의 정규 뉴스 프로그램 6회 분(88,133음절)을 대상으로 ‘자극적 표현’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조사 대상은 시청률을 고려하여 저녁 뉴스로 한정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분석 대상 프로그램 분량과 음절수

방송사		프로그램 이름	프로그램 분량	음절수
지상파	KBS1	뉴스9	1회 분	15,284
	MBC	뉴스데스크	1회 분	22,206
	SBS	8뉴스	1회 분	16,272
종합편성	채널A	종합뉴스	1회 분	9,904
	JTBC	뉴스9	1회 분	13,242
	MBN	뉴스8	1회 분	11,225

II. 자극적 표현의 개념 정의

재난보도는 방송 장르의 속성상 신속성과 함께 정확성이 요구된다. 국가적 재난을 다룰 때는 더욱욱 그러하다. 그래야만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 정확성이 없는 신속성은 혼란을 키울 수 있고, 신속성이 없는 정확성은 피해를 키울 수 있으므로 신속성과 정확성은 재난보도에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데 신속성과 달리 정확성은 그 개념이 매우 복잡적이다. 정확성이라는 말에는 언어 내용뿐만 아니라 언어 형식까지 함축되어 있다. 언어 내용의 정확성이 신뢰성과 관련이 있다면, 언어 형식의 정확성은 규범성을 비롯하여 세련성, 공식성, 용이성, 자극성 등과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 출처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거나 근거가 부족한 보도는 언어 내용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어문규범에 맞지 않거나 자연스럽게 않고 격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으며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사용한 보도는 언어 형식의 정확성이 떨어진다. 자극적 표현을 사용한 보도도 언어 형식의 정확성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자극적 표현이란 무엇일까? 방송언어의 공공성 진단 기준을

제안한 김한샘(2011:44)은 기자나 아나운서의 개성이 강조되면서 뉴스가 자극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정확성 범주의 과장 표현(최고, 폭발할 지경)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재난 보도 방송언어 사용 실태를 분석한 김형주·서은아·김미형(2015:112~113)도 정확성 범주의 과장 표현이 재난 보도의 자극성과 관련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갈등 보도의 내용과 행태를 분석한 황치성(2008:56)은 과도한 과장 표현(금세기 최대)과 이분법적 표현(모든 시민들은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극단적 표현(반드시, 기필코)을 객관성¹⁾ 범주의 오류로 진단하는데, 이들 오류 유형을 자극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방송언어의 사회적 의미를 분석한 임태섭(2001:54~56)은 과장 표현(최악의, 전무, 금세기 최대, 사상 최악)과 과일반화 표현(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모든 국민들의 한결같은), 과국식 표현(대란, 대폭락, 전쟁, 이수라장), 한자 수식어 과장 표현(폭-, 급-, 대-, 초-, 극-, 총체적, 전면, 대폭), 공식적 과장 표현(전격, 뿌리깊은, 무더기), 이분법·극단적 표현(열악한)을 공식성²⁾ 범주의 오류로 진단하는데, 이들 오류의 유형도 자극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방송언어의 건전성을 분석한 황하성·정영희·김설아(2012:219)는 극단적 과장 표현을 공손성 범주의 오류로, 방송언어의 평가 척도를 제안한 박재현·김한샘(2015:94)은 극단적 표현과 과장 표현을 객관성이 부족한 표현으로 진단하면서 공정성 범주의 오류로 다루고 있다. 이처럼 평가 범

1) 이러한 관점은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언어 사용 실태를 다룬 강길호(2001:104)에서 먼저 다루었는데, 극단적 표현의 사례로 '대량학살, 할인전쟁, 난장판' 등을 들고 있다. 방송언어 평가지수를 다룬 이주행·류춘열(2004:31)과 이주행(2005:230)도 '극단적 표현'과 '과장 표현'을 객관성 범주의 오류로 다루고 있다.

2) 방송언어의 평가지수를 다룬 김병길(2004:290)은 감정적 절제를 잃게 만드는 '극단적 표현'과 '과장 표현'을 공식성 오류로 다루고 있다.

주도 다르고, 하위분류된 표현의 유형도 다르지만 과장 표현을 비롯하여 과잉반화 표현, 이분법적 표현, 과국식 표현, 극단적 표현 등을 시청자의 감정을 자극하는 표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같다.

참고로 외국 언론의 재난보도 규정을 살펴보면, 일본 NHK의 재난보도 지침은 외부로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강하다’나 ‘상당하다’ 등의 어휘는 사용할 수 있지만 ‘크다, 심하다, 매섭다’나 ‘전멸, 초토화’처럼 자극적인 어휘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백선기·이옥기, 2012:33·52).³⁾

일본 NHK ‘국내프로그램기준’(1998) 제11항 ‘표현’에 관한 규정을 보면 “불안 또는 불편한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저속한 표현”을 가급적 사용하지 말 것과 “잔학한 행위나 육체의 고통을 생생하게 묘사하거나 과장”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다.

국제언론인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Journalists]의 ‘재난과 분쟁’ 보도 지침에서 제1부 9번째 항목 ‘위기 보도 요령’을 보면 “위기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공황을 유발할 수 있는 단어 선택을 피하라.”라는 원칙이 제시되어 있다(Deborah Potter & Sherry Ricchiardi, 2010:30).

영국 BBC의 ‘편집지침서(2002)’ 제11장 ‘전쟁, 테러와 비상사태’에 관한 규정에서는 “개인에게 불필요한 고통이나 상처를 주지 말 것”과 “인간의 고통과 관련한 문제를 다룰 때 시청자의 입장을 신중하게 고려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참고로 BBC는 테러와 관련하여 언론이 사용해야 하는 표

3) 김원철 외(2011)는 ‘NHK Pocket Dictionary’(1984)를 인용하여 NHK의 재난 보도에 ‘강하다’라는 표현은 허용되지만 ‘심하다’나 ‘매섭다’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워싱턴포스트지의 기자 치코 할랜(Chico Harlan)도 NHK의 재난 보도에는 ‘Massive’나 ‘severe’ 등 공황을 유발할 수 있는 어휘가 사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Chico Harlan, 2011).

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미국 컬럼비아대학 부설 기관인 다탈(Dart) 센터의 마크 브레인(Mark Brayne, 2007:7)은 ‘트라우마와 저널리즘’(Trauma & Journalism)에서 심리적 외상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을 다룰 때는 “선정적으로 다루거나 억지로 꾸밀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다. 그로 인해 극심한 두려움이나 무력감에 빠질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일 수 있다고 말한다.

참고로 우리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2015. 10. 개정)’에서는 제3절의 2에서 재난방송에 대한 규정을 명시해 놓고 있는데, 그중에 제24조의 3에서는 피해 또는 구조 상황이나 피해자의 모습을 지나치게 자극적인 언어로 표현하지 말 것과 “시청자의 안정을 저해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다루지 말 것을 권장하고 있다. 방송 소재 및 표현 기법을 다루고 있는 제5절의 제37조에서도 “시청자에게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묘사로서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발생 장면의 지나치게 상세한 묘사”를 금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서 ‘자극적 표현’의 속성을 간추리면 ‘불편함이나 불안감을 안겨주는 표현’, ‘육체의 고통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표현’, ‘피해 또는 구조 상황을 과장하거나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표현’, ‘위기 상황을 악화하거나 공황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 ‘선정적이거나 극적인 표현’, ‘극심한 두려움이나 무력감에 빠질 수 있도록 만드는 표현’, ‘안정을 저해하거나 공포심을 심어주는 표현’, ‘피해 현장이나 피해자의 모습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는 표현’ 등으로 정리된다. 이 외에도 ‘지나치게 흥분된 어조’와 ‘개인적인 감정 표출’, ‘공포심과 수치심을 안겨주는 선정적 표현’, ‘피해자 가족이 오열하는 등의 과도한 감정 표현’, ‘재난 상황의 본질과 관련 없는 흥미 위주의 표현’ 등이 포함된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피해 및 구조 상황을 과장하거나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표현, 뉴스 진행자의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 피해자 가족의 슬픔과 분노를 드러내는 표현, 피해자 가족의 슬픈 사연을 소개하는 표현 등을 ‘자극적 표현’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Ⅲ. 자극적 표현의 유형 및 사용 실태

세월호 재난보도와 관련하여 구조 작업이 채 끝나기도 전에 피해 선박이 1인당 3억 5천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보험(MBC뉴스데스크, 2014.4.16.)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린 보도나 “친구가 죽었는데 알고 있나?”(JTBC뉴스특보, 2014.4.16.), “선내 영커있는 시신이 다수”(KBS뉴스특보, 2014.4.18.) 등의 보도가 논란이 되면서 재난보도에 자극적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마련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 장에서는 제2장의 개념 정의에 근거하여 실제 세월호 재난보도에 사용된 자극적 표현의 유형을 총 8가지로 세분하여 그 사용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자극적 표현의 유형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 재난보도를 다룬 6개 방송사의 정규 저녁뉴스 프로그램 6회 분을 분석한 결과, 총 8가지 유형의 자극적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2>와 같다.

〈표2〉 자극적 표현의 유형

피해 및 구조 상황을 과장하기	정도 표현 과일반화 표현 극단적 표현
피해 및 구조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기	피해 상황의 구체적인 묘사 표현 구조 상황의 구체적인 묘사 표현
감정 표현하기	뉴스 진행자의 감정 표현 피해자 가족의 감정 표현
사연 소개하기	피해자의 슬픈 사연 소개 표현

〈표2〉에서 ‘피해 및 구조 상황을 과장하기’는 주로 어휘의 형태로 실현되고, ‘피해 및 구조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기’부터 ‘사연 소개하기’까지는 주로 구나 절 형태로 실현된다. 그러나 ‘과장하기’가 구나 절 형태로 실현되기도 하고, ‘묘사하기’가 어휘 형태로 실현되기도 하므로 어휘 층위와 표현 층위를 따로 구분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앞선 연구에서 밝힌 ‘과장하기’의 형식 외에도 ‘묘사하기’와 ‘감정 표현하기’, ‘사연 소개하기’ 등의 방식을 통해서도 자극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음을 밝히고자 했다.

2. 자극적 표현의 사용 실태

피해 상황을 ‘대형’이나 ‘최악’ 등의 정도 표현을 사용하여 과장하거나 ‘아비규환’이나 ‘이수라장’ 등의 극단적 표현을 사용하여 과장하는 것은 시청자를 자극하기 위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구조 상황을 ‘충동원’이나 ‘충력’의 과일반화 표현을 사용하여 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1) 피해 및 구조 상황을 과장하기

① 정도 표현

세월호 재난보도에서 정도 표현을 사용한 과장은 주로 피해 상황을 보도하는 과정에 사용되었다. 정도 표현을 사용하는 방식은 피해 상황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줄이는 형태⁴⁾로 사용되는데, 세월호 재난보도에서는 ‘대형 참사’나 ‘사상 최악의 사고’처럼 피해 상황을 크고 심각하게 표현하는 형태로만 사용되었다.

- (1) ㄱ. 현재까지 구조가 확인된 사람은 164명. 여전히 293명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사상 최악의 해상 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 2014. 4. 16.)
- ㄴ. 292명이 사망하는 대참사였습니다. (MBN 뉴스8, 2014. 4. 16.)
- ㄷ. 사고 발생 13시간이 넘은 지금,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종합뉴스, 2014. 4. 16.)

피해 상황을 과장하는 정도 표현으로는 예문(1)의 ‘사상 최악’, ‘대참사’, ‘대형 참사’ 등의 표현이 사용되었다. 이들 표현의 방송사별 사용 양상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피해 상황을 과장하는 정도 표현의 사용 실태

방송사	표현(횟수)
KBS1 뉴스9	대형(2)
MBC 뉴스데스크	최악(4), 대형(3), 사상 최악(2), 초대형(1), 대혼란(1)
SBS 8뉴스	대형(5), 최악(2), 대규모(1)
채널A 종합뉴스	대형(4)

4) 김미형(2003:52)은 과장을 “적은 것은 실제보다 더 적게, 큰 것은 실제보다 더 크게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JTBC 뉴스9	없음
MBN 뉴스8	최악(2), 사상 최악(1), 대형(1), 대참사(1)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 상황을 과장하는 정도 표현으로는 ‘대형’의 사용 빈도가 15회로 가장 높고, 그 뒤를 이어 ‘최악’의 사용 빈도가 8회로 나타났다. 피해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도 표현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건에 대한 언론의 태도를 드러낸다는 긍정적인 관점이 있는가 하면, 표현의 객관성과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부정적인 관점이 존재한다.

② 과일반화 표현

세월호 재난 보도에서 과일반화 표현을 사용한 과장은 주로 구조 상황을 보도하는 과정에 사용되었다. 구조 작업에 투입된 인적·물적 자원을 ‘전군’을 동원했다든지 ‘모든’ 장비와 인력을 투입했다든지 ‘총동원’했다는 식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구조 작업 역시 ‘급파’라든지 ‘필사’, ‘총력’을 다했다는 식으로 각각의 구조 작업 전체를 일반화하여 표현하는 사례가 많았다.

(2) ㄱ. 사고 직후, 동원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이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KBS1 뉴스9, 2014. 4. 16.)

ㄴ. 해가 진 뒤에는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조명탄을 투하하며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데스크, 2014. 4. 16.)

ㄷ. 구조 현장에는 수색헬기를 비롯해 해경과 해군 선박은 물론 인근의 어선까지 총동원 돼 말 그대로 필사의 구조작업을 벌였습니다. (SBS 8뉴스, 2014. 4. 16.)

ㄹ. 지금도 사고 현장에서는 전군과 해경, 미군까지 참여한 수색과 구조 작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채널A 종합뉴스, 2014. 4. 16.)

구조 상황을 과장하는 과일반화 표현으로는 예문(2)의 ‘모든’, ‘총(總)-’, ‘필사’, ‘전(全)-’ 외에도 ‘사투’, ‘총력’ 등의 어휘가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이들 표현의 방송사별 사용 양상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구조 상황을 과장하는 과일반화 표현의 사용 실태

방송사	표현(횟수)
KBS1 뉴스9	급파하다(8), 총동원(4), 사투(2), 모든(2), 목숨을 걸다(2), 모두(1), 전력(1), 필사(1)
MBC 뉴스데스크	급파하다(10), 총동원(8), 필사(4), 총력(3), 모든(3), 총출동(1), 전력(1), 숨가쁘다(1), 모두(1), 온(1)
SBS 8뉴스	총동원(4), 필사(4), 급파하다(3), 모든(1), 혼신(1)
채널A 종합뉴스	전군(2), 총동원(1), 급파하다(1)
JTBC 뉴스9	급파하다(2), 총동원(2), 총력(1), 총출동(1), 온(1)
MBN 뉴스8	총동원(5), 급파하다(4), 필사(2), 총력(1), 온(1)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조 상황을 과장하는 과일반화 표현으로는 ‘총동원’, ‘총출동’, ‘총력’ 등 ‘총(總)’의 사용 빈도가 31회로 가장 높고, 그 뒤를 이어 ‘급파하다’ 28회, ‘필사’ 11회 순으로 나타났다. 구조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일반화 표현을 남용한 것은 결과적으로 구조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시해야 할 언론의 기능을 소홀히 했다는 반증이므로 부정적인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

③ 극단적 표현

세월호 재난보도에서 극단적 표현을 사용한 과장은 주로 피해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피해 상황을 ‘아비규환’이라든지 ‘아수라장’이라는 식으로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다.

(3) 7. 손 쓸 새도 없이 배가 빠르게 기울면서 아비규환으로 변한 배 안.

(KBS1 뉴스9, 2014. 4. 16.)

- ㄴ. 승객들이 줄줄이 균형을 잃고 쓰러졌고, 선실 냉장고가 넘어가는 등 배 안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SBS 8뉴스, 2014. 4. 16.)

피해 상황을 과장하는 극단적 표현으로는 예문(3)의 ‘아비규환’과 ‘아수라장’이 주로 사용되었다.⁵⁾ 이들 어휘의 방송사별 사용 양상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피해 상황을 과장하는 극단적 표현 사용 실태

방송사	표현(횟수)
KBS1 뉴스9	아비규환(3), 아수라장(1)
MBC 뉴스데스크	없음
SBS 8뉴스	아비규환(2), 아수라장(1)
채널A 종합뉴스	없음
JTBC 뉴스9	아비규환(1)
MBN 뉴스8	아비규환(1)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 상황을 과장하는 극단적 표현으로 ‘아비규환’이 7회, ‘아수라장’이 2회 사용되었다. 이 외의 다른 극단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재난 보도에서 극단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두려움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2) 피해 및 구조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기

피해 상황과 구조 상황을 필요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시청자를 자극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5) 조사 기간 외의 방송에서는 ‘지옥’, ‘생지옥’ 등의 어휘도 사용되었다.

① 피해 상황의 구체적인 묘사 표현

세월호 재난보도에서 피해 상황의 구체적인 묘사 표현은 뉴스 진행자가 사고 직후의 피해 현장을 생중계로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는 행위를 비롯하여 피해 당시의 상황을 목격자 진술이나 뉴스 진행자의 가정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4) ㄱ. 수면 위에는 배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컵라면이나 플라스틱 삼푸 통 등이 떠다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 2014. 4. 16.)
- ㄴ. 위 아래가 뒤바뀌어 버린 객실 내에서 쏟아져 내린 물건에 맞아 골절 등을 입었다면 더더욱 대피하기는 힘들어집니다. (SBS 8뉴스, 2014. 4. 16.)
- ㄷ. 생존자들은 쿵 소리 이후 30분만에 90도 이상 배가 기울어졌고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전했습니다. (SBS 8뉴스, 2014. 4. 16.)
- ㄹ. 음료 자판기 같은 집기가 선실에 있던 승객들을 덮쳤습니다. 기대 감에 부풀어 샀던 여행 가방도 둔기로 돌변했습니다. (KBS1 뉴스9, 2014. 4. 16.)

피해 상황의 구체적인 묘사 표현으로는 예문(4ㄱ)처럼 사고 직후 피해 현장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도 있지만 예문(4ㄴ)처럼 피해 당시의 상황을 뉴스 진행자의 가정에 근거한 형식으로 묘사한 것도 있고, 예문(4ㄷ)처럼 목격자의 진술에 근거한 형식으로 묘사한 것도 있다. 예문(4ㄹ)처럼 목격자의 진술에 근거한 것인지 뉴스 진행자의 추측에 근거한 것인지 구별이 쉽지 않은 것도 있다. 이들 표현의 방송사별 사용 양상은 다음 <표6>와 같다.

<표6> 피해 상황의 구체적인 묘사 표현 사용 실태

방송사	유형별 사용 횟수
KBS1 뉴스9	예문(4ㄱ)형: 1회, 예문(4ㄴ)형: 10회
MBC 뉴스데스크	예문(4ㄱ)형: 1회, 예문(4ㄴ)형: 5회, 예문(4ㄷ)형: 2회
SBS 8뉴스	예문(4ㄷ)형: 2회, 예문(4ㄹ)형: 2회

<표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 상황의 구체적인 묘사는 방송 진행자가 사고 직후 피해 현장을 생중계로 직접 묘사한 예문(4ㄱ)형과 목격자의 진술한 근거한 예문(4ㄷ)형이 2회 사용된 데 반해, 방송 진행자의 가정에 근거한 예문(4ㄴ)형이 15회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목격자의 진술에 근거한 것인지 방송 진행자의 가정에 근거한 것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예문(4ㄷ)형은 4회 사용되었다. 지상파 3사와 달리 종편 3사의 방송에는 피해 상황의 생생한 묘사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② 구조 상황의 구체적인 묘사 표현

세월호 재난 보도에서 구조 상황의 구체적인 묘사 표현은 뉴스 진행자가 구조 현장을 생중계하듯 자세하게 묘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5) ㄱ. 신발도 챙겨 신지 못하고 겨우 빠져나온 학생은 기울어진 배 옆면에 올라 앉아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 2014. 4. 16.)
- ㄴ. 이미 기울어진 배에서 승객들이 위태롭게 구조를 기다립니다. 깎아지른 절벽으로 변한 갑판 위에서 난간을 잡고 간신히 버팁니다. (MBN 뉴스8, 2014. 4. 16.)

구조 상황의 구체적인 묘사 표현으로는 예문(5ㄱ)처럼 한 명의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추어 묘사하는 것도 있지만, 예문(5ㄴ)처럼 여러 명의 피해

자에게 초점을 맞추어 묘사하는 것도 있다. 이들 표현의 방송사별 사용 양상은 다음 <표7>과 같다.

<표7> 구조 상황의 구체적인 묘사 사용 실태

방송사	유형별 사용 횟수
KBS1 뉴스9	예문(5ㄱ)형: 2회, 예문(5ㄴ)형: 15회
MBC 뉴스데스크	예문(5ㄱ)형: 2회, 예문(5ㄴ)형: 20회
SBS 8뉴스	예문(5ㄱ)형: 1회, 예문(5ㄴ)형: 2회
JTBC 뉴스9	예문(5ㄴ)형: 2회
MBN 뉴스8	예문(5ㄴ)형: 2회
채널A 종합뉴스	예문(5ㄱ)형 1회, 예문(5ㄴ)형 1회

<표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조 상황의 생생한 묘사는 한 명의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춘 예문(5ㄱ)형이 6회 사용된 데 반해,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춘 예문(5ㄴ)형이 42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 감정 표현하기

뉴스 진행자가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거나 피해자 가족의 슬픔과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피해자 중심의 보도’가 아니라 ‘시청자 중심의 보도’라는 점에서 자극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① 뉴스 진행자의 감정 표현

세월호 재난보도에서 뉴스 진행자의 감정 표현은 피해 상황과 구조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 모두 사용되었다. 재난보도에서 뉴스 진행자의 감정 표현은 말을 잊지 못하거나 눈시울을 붉히는 등의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감정을 드러내는 심리형용사를 사용하기도 한다.

- (6) 가. 이렇게 밤이 깊어가고 구조 작업도 늦어지면서 안타까운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KBS1 뉴스9, 2014. 4. 16.)
- 나. 오늘 차마 믿고 싶지 않은 고통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9, 2014. 4. 16.)
- 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함만 더해갑니다. (MBN 뉴스8, 2014. 4. 16.)
- 르. 제가 취재기자였을 때 전북 부안 앞바다에서 끔찍한 재난사고가 있었습니다. (채널A 종합뉴스, 2014. 4. 16.)

뉴스 진행자의 감정 표현으로는 예문(6)의 ‘안타깝다, 고통스럽다, 날벼락 같다, 초조하다, 끔찍하다’ 외에도 ‘애타다, 어처구니없다, 야속하다, 참담하다’ 등의 어휘가 사용되었다. 이들 어휘의 방송사별 사용 양상은 다음 <표8>과 같다.

<표8> 뉴스 진행자의 감정 표현 사용 실태

방송사	표현(횟수)
KBS1 뉴스9	안타깝다(5)
MBC 뉴스데스크	안타깝다(5), 애타다(1), 초조하다(1)
SBS 8뉴스	애타다(2), 날벼락 같다(1), 아찔하다(1), 안타깝다(1)
채널A 종합뉴스	안타깝다(5), 끔찍하다(1), 참담하다(1)
JTBC 뉴스9	안타깝다(6), 고통스럽다(1)
MBN 뉴스8	초조하다(3), 안타깝다(2), 끔찍하다(1), 간절하다(1), 걱정되다(1), 야속하다(1), 어처구니없다(1)

<표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타깝다’의 사용 빈도가 24회로 가장 높고, 이 외에도 ‘애타다’ 3회, ‘초조하다’ 3회, ‘끔찍하다’ 2회, ‘고통스럽다’ 1회, ‘날벼락 같다’ 1회, ‘아찔하다’ 1회, ‘야속하다’ 1회, ‘어처구니없다’ 1회, ‘애타다’ 1회, ‘참담하다’ 1회 등이 사용되었다. 뉴스 진행자의 감정 표현은 시청자가 느끼고 있는 슬픔을 공감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시

청자의 슬픔을 유도하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뉴스 진행자의 감정 표현은 수사적인 방식으로도 이루어지는데, 세월호 재난보도에서 뉴스 진행자의 수사적 감정 표현은 피해 상황과 구조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 모두 사용되었다. 수사적 감정 표현은 뉴스 진행자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표현의 정도가 더 크고 강하게 전달되기도 한다.

- (7) ㄱ. 자식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학부모들로 학교는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MBN 뉴스8, 2014. 4. 16.)
- ㄴ. 평온한 수요일 아침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 몰려왔습니다. (SBS 8 뉴스, 2014. 4. 16.)
- ㄷ. 죽음의 문턱에서 빠져나온, 말 그대로 필사의 탈출이었습니다. (KBS1 뉴스9, 2014. 4. 16.)

뉴스 진행자의 수사적 감정 표현은 예문(7)의 ‘울음바다, 날벼락 같다, 죽음의 문턱에서 빠져나오다’ 외에도 ‘눈물바다, 악몽’ 등이 사용되었다. 이들 표현 중에 ‘울음바다, 악몽’ 등은 방송사 구분 없이 자주 사용되었다. 이들 어휘의 방송사별 사용 양상은 다음 <표9>과 같다.

<표9> 뉴스 진행자의 수사적 감정 표현 사용 실태

방송사	표현(횟수)
KBS1 뉴스9	울음바다(1), 악몽(1), 죽음의 문턱에서 빠져나오다(1)
MBC 뉴스데스크	실낱 같은 희망(3), 울음바다(2), 촌각을 다투다(2), 삶과 죽음을 넘나들다(1), 마음이 타들어 가다(1)
SBS 8뉴스	악몽(2), 울음바다(1), 눈물바다(1), 날벼락 같다(1), 애간장을 태우다(1), 무거운 적막감이 흐른다(1)
채널A 종합뉴스	악몽(3), 청천벽력(1)

JTBC 뉴스9	악몽(1), 실낱 같은 희망(1), 가슴이 타들어가는 상황(1), 피를 말리는 순간(1), 가슴이 찢긴(1)
MBN 뉴스8	울음바다(2), 눈물바다(1), 마른 하늘에 날벼락(1), 깎아지른 절벽(1), 가슴을 치는 일(1)

<표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악몽’의 사용 빈도가 7회로 가장 높고, ‘울음바다’ 6회, ‘실낱같은 희망’ 4회, ‘날벼락’ 3회, ‘눈물바다’ 2회 등이 사용되었다. 이들 표현은 뉴스 진행자의 감정에 근거한 표현이라는 점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과어휘화’로 인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즉 “특정 사건에 대한 미디어 생산자의 감정이나 사상이 지나칠 정도로 과도하게 언어에 투사됨으로써 미디어 수용자가 원래 의미보다 훨씬 더 지나칠 정도의 의미 해석을 하도록 하는”(김병홍, 2012:21) 것이다.

② 피해자 가족의 감정 표현

피해자 가족의 감정 표현은 뉴스 진행자가 피해자 가족의 슬픔과 분노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8) ㄱ. 아들딸 이름을 못 찾아 낙담한 수 백명의 가족들은 울부짖었습니다. (KBS1 뉴스9, 2014. 4. 16.)
 - ㄴ. 살아남은 사람들은 친구와 동료들 걱정하는 마음에 울고, 아직 가족을 찾지 못한 이들은 절망과 기다림 속에 오열했습니다. (SBS 8뉴스, 2014. 4. 16.)
 - ㄷ. 학부모를 비롯해 전국에서 달려온 사고 가족들이 바닥에 혼절해 있는가 하면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 듯 멍하게 앉아 있는 모습도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JTBC 뉴스9, 2014. 4. 16.)
 - ㄹ. 흥분한 가족들이 실신하는가 하면 정확한 구조 상황을 밝히려며 몸싸움을 벌이는 등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MBN 뉴스8, 2014. 4. 16.)

피해자 가족의 감정 표현으로는 예문(8)의 ‘울부짖다, 오열하다, 멍하게 앉아 있다, 실신하다, 몸싸움을 벌이다’ 외에도 ‘발만 동동 구르다, 항의하다, 분통을 터뜨리다, 망연자실하다, 울음이 터지다’ 등의 표현이 사용되었다. 이들 표현의 방송사별 사용 양상은 다음 <표10>과 같다.

<표10> 피해자 가족의 슬픔 묘사 사용 실태

방송사	표현(횟수)
KBS1 뉴스9	발만 동동 구르다(3), 오열하다(2), 항의하다(2), 고성인 오가다(1), 눈물로 가득 차다(1), 속이 타들어가다(1), 실신하다(1), 애를 태우다(1), 울부짖다(1), 울음이 터지다(1), 충격을 받다(1), 침통하다(1)
MBC 뉴스데스크	오열하다(7), 항의하다(4), 분통을 터뜨리다(2), 간절히 기원하다(1), 눈물을 흘리다(1), 발동동(1), 분노하다(1), 슬픔에 잠기다(1), 실신하다(1), 안절부절하다(1), 애를 태우다(1), 주저앉다(1)
SBS 8뉴스	오열하다(4), 눈물짓다(1), 눈물 흘리다(1), 망연자실하다(1), 분노가 폭발하다(1), 분통을 터뜨리다(1), 쓰러지다(1), 애간장을 태우다(1), 울부짖다(1), 절망하다(1), 찾아 헤매다(1), 항의하다(1), 흐느끼다(1)
JTBC 뉴스9	오열하다(3), 망연자실하다(3), 실신하다(2), 침통하다(2), 울분(2), 간절하다(1), 격하게 항의하다(1), 고성과 욕설이 오가다(1), 기억조차 하지 못하다(1), 눈물을 흘리다(1), 눈물조차 흘리지 못하다(1), 말을 잇지 못하다(1), 멍하게 앉아 있다(1), 울다(1), 울먹이다(1), 울음이 터져 나오다(1), 애꿎다(1), 애타게 울부짖다(1), 절망하다(1), 정신없이 돌아다니다(1),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다(1), 피를 말리다(1), 혼돈(1), 혼절하다(1)
MBN 뉴스8	오열하다(3), 울음을 터뜨리다(2), 고성(1), 몸싸움을 벌이다(1), 실신하다(1), 항의하다(1)
채널A 종합뉴스	오열하다(1), 분통을 터뜨리다(1)

<표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열하다’의 사용 빈도가 20회로 가장 높고, ‘항의하다’ 9회, ‘실신하다’ 5회, ‘망연자실하다’ 4회, ‘발만 동동 구르다’ 4회, ‘분통을 터뜨리다’ 4회, ‘울음이 터지다’ 4회, ‘고성이 오가다’ 3회, ‘눈물 흘리다’ 3회, ‘애타다’ 3회, ‘침통하다’ 3회 등이 사용되었다. 피해자 가족의 슬픔에 대한 묘사는 76회로 피해자 가족의 분노에 대한 묘사 22회에

비해 약 3.5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분노하는 모습에 대한 묘사보다 슬퍼하는 모습을 더 자주 노출한 것이다.

4) 사연 소개하기

피해자 가족의 슬픈 사연을 소개하는 등 개인적인 가정사를 들쳐 내는 것은 시청자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자극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① 피해자의 슬픈 사연 소개 표현

슬픈 사연 소개 표현은 겉으로 드러난 피해 또는 구조 상황 이외의 개인 신상에 관한 슬픈 사연을 찾아서 소개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친구 또는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라든지 희생자나 구조자의 가정환경, 희생자가 가족과 주고받은 마지막 메시지 등에 초점을 맞추는 식이다.

- (9) ㄱ. 50년지기 초등학교 동창생 17명이 여행을 떠났다가 4명만 구조되고 〇〇〇씨 등 13명은 생사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데스크, 2014. 4. 16.)
- ㄴ. 엄마, 아빠, 오빠 등 가족 4명과 함께 제주여행을 떠났다가 사고 선박에서 구조돼 홀로 병원으로 후송된 6살 〇〇〇 어린이입니다. (SBS 8뉴스, 2014. 4. 16.)
- ㄷ. 배가 거의 바다로 침수된 상황에서도 친구들은 “괜찮니?”라며 서로 걱정했습니다. (JTBC 뉴스9, 2014. 4. 16.)
- ㄹ. 사고가 난 지 30분 쯤 뒤입니다. “언니가 말이야 기념품 못 사올 것 같아 미안해.” 그러니까 깜짝 놀랍니다. (MBN 뉴스8, 2014. 4. 16.)

예문(9ㄱ)은 50년 지기 초등학교 동창생들이 여행을 떠났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내용으로 그것이 마지막 환갑 여행이 되었다든지, 희생자 가운데 최근에 큰 수술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든지, 아들의 결혼식을 눈앞에 둔 사람이 있었다는 식으로 다양한 사연이 소개되었고, 예문(9ㄴ)은 네 가족 중 혼자만 살아남은 여섯 살 어린이의 이야기로 한 살 많은 오빠가 구명조끼를 입혀줘 살았다든지, 삼등실에 탔었다든지, 다문화가정 자녀라든지 하는 식으로 다양한 사연이 소개되었다. 예문(9ㄷ, ㄹ)은 희생자들이 가족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로 매우 다양한 사연이 소개되었는데, 그중 예문(9ㄹ)은 허위 사연으로 드러났다.

IV. 맺음말

재난보도의 기본 원칙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피해 상황과 구조 상황을 알림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은 시청자의 슬픔을 자극하는 ‘자극적 표현’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자극적인 표현’의 유형을 8가지로 세분하여 그 사용 실태를 점검하였다.

그 결과, 피해 상황을 과장하는 정도 표현으로는 ‘대형-’과 ‘최악’의 사용 빈도가 높고, 구조 상황을 과장하는 과일반화 표현으로는 ‘총동원’과 ‘급파’, ‘필사’ 등의 사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피해 상황을 과장하는 극단적 표현으로 ‘아비규환’과 ‘아수라장’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뉴스 진행자의 직접적인 감정 표현으로는 ‘안타깝다’를, 수사적인 감정

표현으로는 ‘악몽’을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피해자 가족의 감정 표현으로는 ‘오열하다’와 ‘항의하다’를 많이 사용했는데, 이들 표현은 ‘과어 휘화’의 문제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사용이 요구된다.

피해 상황의 구체적인 묘사 표현으로는 뉴스 진행자가 사고 직후 피해 현장을 생중계로 직접 묘사한 표현과 목격자의 진술에 근거한 표현보다 방송 진행자의 추측에 근거한 표현이 많이 사용되었다. 피해자의 슬픈 사연 소개 표현으로는 50년 지기 초등학교 동창생의 마지막 환갑 여행에 관한 이야기에서부터 여섯 살 어린이의 신상을 파헤친 이야기, 희생자들이 가족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는 등 자극적인 사연을 소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재난보도 방송언어의 ‘자극적인 표현’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기 위하여 ‘자극적 표현’의 유형과 실태를 살펴 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강길호,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언어사용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방송프로그램 언어 분석 연구』, 서울 방송위원회, 2001.
- 김미형, 한국어의 과장 표현 연구, 『한말연구』 23, 한말연구학회, 2003.
- 김미형·서은아·김형주, 재난방송언어 사용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국립국어원, 2014.
- 김병길, 방송언어의 평가지수 측정-뉴스 보도와 시사토론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스피치커뮤니케이션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스피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04.
- 김병홍, 대중매체 언어 분석 방법론, 『우리말연구』 30, 우리말학회, 2012.
- 김수아 역, 영국 BBC 제작 가이드라인 및 심의사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1.
- 김원철·최승욱, 한국과 너무 다른 일본 재난보도, ‘차분한 NHK’ 배우자는데… 동의 하십니까, 국민일보, 2011.
- 김한샘, 방송언어의 공공성 진단 기준, 『반교어문연구』 30, 반교어문학회, 2011.
- 김형주·서은아·김미형, 재난보도 방송언어의 오류 유형 및 개선 방향 -세월호 사고를 중심으로, 『한말연구』 37, 한말연구학회, 2015.
- 박재현·김한샘, 분석적 계층화 과정을 활용한 방송언어 평가 척도 연구, 『사회언어학』, 23-3, 한국사회언어학회, 2015.
- 백선기·이옥기, 보도준칙을 통해서 본 한국 언론의 재난보도,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18, 한국소통학회, 2012.
- 서은아, 재난 방송의 외래어 사용 양상 연구, 『한말연구』 41, 한말연구학회, 2016.
- 이완수·박재영, 방송뉴스의 언어와 표현: 뉴스언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중심으로,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4-1, 문화방송, 2013.
- 이주행·류춘열, 방송언어의 평가지수에 관한 연구, 한국스피치커뮤니케이션학회 연구보고서, 한국소통학회, 2014.
- 이주행, 방송언어의 평가지수와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화법연구』 8, 한국화법학회, 2005.
- 임태섭, 방송언어의 사회적 의미와 영향, 방송프로그램 언어분석 연구, 방송위원회, 2001.
- 황치성, 갈등이슈 보도의 새로운 접근, 한국언론재단 연구서 2008-2, 한국언론재단,

2008.

황하성·정영희·김설아, 방송프로그램의 언어 건전성 평가를 위한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연예·오락 및 드라마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 8, 한국언론학회, 2012.

日本放送協會, NHK 國內番組基準, 1998.

日本放送協會 放送倫理委員會, NHK 放送ガイドライン 2015, 日本放送協會, 2015.

Chico Harlan, In Japan, disaster coverage is measured, not breath less, The Washington Post, March 27, 2011. http://www.washingtonpost.com/lifestyle/style/in-japan-disaster-coverage-is-measured-not-breathless/2011/03/26/AFMmfxl B_story.html 2017. 5. 15. 접속.

Deborah Potter & Sherry Ricchiardi, Disaster and Crisis Coverage, International Center for Journalists. 2010. http://www.icfj.org/sites/default/files/Disaster_Crisis.pdf 2017. 5. 15. 접속

Mark Brayne, Trauma & Journalism: A Guide For Journalists, Editors & Managers, 2007, https://dartcenter.org/sites/default/files/DCE_JournoTraumaHandbook.pdf, 2017. 5. 15. 접속.

Abstract

A study on the inciting expressions in disaster broadcasts

Seo, Eun-a·Kim, Hyeong-ju

This study examines the inciting expressions in disaster broadcasting with the aim of preparing guidelines for appropriate language use in disaster news reporting. The analysis is carried out on news reports on the Sewol ferry disaster April 10, 2014 by three terrestrial broadcasters(KBS News 9, MBC Newsdesk, SBS 8 News) and three general cable TV channels(ChannelA News, MBN News 8, JTBC News 9).

The collected news reports analyzed in terms of the following eight criteria: 1. superlative exaggeration expression, 2. over generalization exaggeration expression, 3. extreme exaggeration expression, 4. emotions expression of newscasters, 5. emotions expression of victim's family, 6. representation of the damage situation, 7. representation of the rescue situation, 8. sad story of victim's.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frequency of use of '대형(oversize)' and '최악(worst)' is high in the superlative expression that exaggerates the damage situation, and the frequency of use of '총동원하다(mobilize fully)', '급파하다(dispatch)', '필사(prepared for death)' Respectively.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아비규환(agonizing cries)' and '아수라장(pandemonium)' were extensively used to exaggerate the damage situation. However, these expressions are problematic in that they are not only inferior in accuracy but also criticized for neglecting the monitoring function of the press.

The news facilitator often used '안타깝다(sorry)' as a direct expression of emotions and the '악몽(nightmare)' as a rhetorical expression of emotions. The victim's family, they used a lot of '오월하다(omit)' and '항의하다(protest)', but these expressions require careful use because they are concerned with the problem of 'over lexicalization'.

As a concrete description of the damage situation, the expression of the news facilitator directly after the accident was portrayed directly by the live broadcast and the expression based on the assumption of the witness' The story of the victim's sad story introduction includes a story about the last sixty years old children's story from the story of the last sixty-fifty year old Jianguo elementary school alumni, and the story of the victims revealing the text messages exchanged with their families.

Key Word: Sewol ferry, disaster broadcasting, broadcasting language, inciting expression

서은아

소속 : 상명대학교 기초교양대학 조교수

전자우편 : daye4994@smu.ac.kr

김형주

소속 :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 특임교수

전자우편 : khj16@smu.ac.kr

이 논문은 2017년 5월 10일 투고되어
2017년 6월 3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7년 6월 9일 게재 확정됨.